

3/28(월) 에스라 묵상 10

에스라 6: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훼방꾼들에 의해 오랫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방해가 생기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앞서 다리오 왕의 답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고레스의 조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인 닷드내와 스달보스내, 그리고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는 성전 재건을 또다시 막기위한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다리오 왕의 답장을 기다리게 됩니다(스 5:5,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이 보낸 답장이 도착하게 되고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6-7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놀랍게도 다리오 왕은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흔쾌히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같은 결과가 이루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스 5:1,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 2: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 4: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의 장로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하셨습니다(2절, "메대도 악데마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도되").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한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이 담긴 중요한 조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하게 될 성전의 설계 도면과 더불어 구체적인 도움에 관한 내용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막지 말고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의 요구대로 풍성히 제공해 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훼방꾼들의 생각과는 달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모르드개와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왕이 신하가 읽어주는 역대 일기 속에서 모르드개의 선행을 발견하게 된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에 6:1-2,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와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사 하만의 음모를 꺾으시고 그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닳드내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수입에서 일부를 내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일로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만져 주셨습니다(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과 그 아들들을 위해 중보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권세와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 분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받아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 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방 왕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또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권세와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주께 나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브리스톨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 이기쁨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